



군종주보

2024년 12월 8일(제1223호)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대림 시기의 두 부분”

대림 시기는 성탄절인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약 4주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4주는 다시 12월 17일을 기준으로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인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내용이 아기 예수님과 그다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복음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사자처럼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활 직전에 위치하기에 성인이 된 예수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른 날에는 예수님의 공생활 때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대림 시기의 첫째 부분이 바로 후자, 최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림 시기에는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자선 주일이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 직전 주일을 ‘온 우리의 임금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인은 물론, 온 세상의 선하신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약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며, 주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몸소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이후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신 모범대로 우리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기한은 이 세상이 끝나는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입니다. 그렇기에 대림 시기 첫째 부분에서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 자선 주일을 지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수행해야 할 사명을 되새길 필요가 있죠.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자선 주일을 연달아 지내며 특별히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우리의 임금’이시기에, 마지막 때 인간만 쫓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기에 우리는 인간 외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포함하는 자연환경-생태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만 위해서는 더 이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고려하고 위해야 우리 인간의 건강한 생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드리우리라.”(바룩 5,8) 아멘.



오병준(미키일) 신부
오뚜기(육군 제8기동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바룩 5,1-9

회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 시

필리 1,4-6.8-11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루카 3,1-6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이홉 번째 시집

10명이 경주(慶州)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세 차례나 문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문초를 당할 때마다 용감히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감옥에서 고초와 굶주림과 병고로 처참하게 고생하면서도 신앙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 중 16세가 된 소년이 있는데, 옥사쟁이에게 간청하여 아버지와 같이 형장에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다른 누구보다 더 굳세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으며 미신자들조차 탄복하였습니다.

24세쯤 된 동정녀가 있었는데, 교리에 밝고 열심이 특출하여 모든 교우들 중에서 뛰어나므로 일반의 존경과 흠모를 받아 왔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하여 순교하기를 원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를 간절히 자청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다른 교우들이 체포될 때 그녀는 포졸들 주변을 맴돌면서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친과 다른 교우들의 강요에 따라 마지못해서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두 처녀들과 함께 포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두 처녀는 하나는 17세이고, 하나는 18세였는데, 이 동정녀가 선생처럼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던 처녀들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오자 그녀는 자기도 자기 아버지와 오빠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으니 함께 감옥으로 잡아가 달라고 자원했습니다. 이때 두 처녀들도 이 동정녀를 본받아 같이 잡혀 가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세 처녀의 엄지손가락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므로 포졸들은 그 처녀들을 관가로 데려가지 않고 농락하거나 다른 데 팔아먹으려 하였습니다. 포졸들의 속셈을 알아차린 세 처녀들은 포졸들에게 자기들을 놓아 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포졸들의 짐승 같은 욕정을 진정시키셔서 처녀들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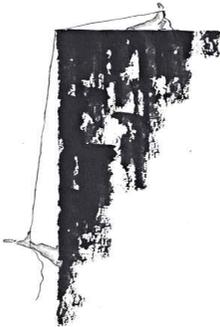
그들 중에 큰 동정녀의 이름은 아가타였습니다. 아가타는 아버지와 오빠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돌봐 주는 이나 의지할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술한 위험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헤매다니다가 결국 저에게로 피신하여 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여 탈진한 몸으로 병석에 누워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사를 신심 깊게 받은 아가타는 둘러 있던 교우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임종경의 마지막 경문을 끝내자 아가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나를 이끄는 이



무슨 말이 필요할까.
이런 자리에서.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하자는 대로.

무슨 생각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거지.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세레지 요한의 설교



아버지 브뤼겔(Pieter Bruegel the Elder, 1525년 ~ 1569년)
1566년경 제작 / 패널 위 유화, 95 × 160.5cm
부다페스트 국립미술관, 헝가리



어떤 이는 집중하고, 어떤 이는 짐이 든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이는 뒷짐을 지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이의 손금을 보려는 등 온갖의 사람들을 온갖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아버지 브뤼겔은 ‘농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16세기 네덜란드의 소박한 시민과 농민들의 삶을 자주 그렸다.

이 작품에서도 수많은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세레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직업도, 신분도, 또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양하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 가득 차 나무까지 올라가려는 기만,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있다. 대림 2주를 맞아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 혹은 우리가 광야에서 많은 이들에게 어떤 외침을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나와는 주님의 길을 미련하여리.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리. 골짜기는 모두 매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리. 굽은 대는 곧 이지고 기진 길은 평탄하게 되어리.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 ” (루카 3,4-6)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2주일: 신봉대 김상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한밭(제32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2월 8일(주일)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12월 9일(월)~10일(화),
 왜관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 국장회의
 때·곳: 12월 10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평화방송 신년 메시지 촬영
 때·곳: 12월 11일(수) 15:00,
 군중교구청 주교관 집무실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상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종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